『영미연구』
제47집 (2019): 1-22

트웨인의 천국 재현에 나타난 19세기 미국 사회 비판*

안 동 현

[국문초록]

트웨인의 『스톰필드 선장의 천국 방문기』는 천국에 대한 담론으로서 두 가지 기능, 즉 위안을 주는 역할과 사회비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 작품은 당대의 베스트셀러이자 대표적인 '위로 문학'인 엘리자베스 펠프스의 『열려있는 문』에 대한 풍자로 쓰여 졌다. 펠프스는 기존 기독교의 전통적인 천국개념과 달리 현실세계의 즐거움이 재현되는 천국을 그려 보임으로써 상실의 아픔을 위로했다. 트웨인은 펠프스와 달리 천국을 상실에 대한 위안의 도구로 삼지 않고, 죽음을 삶의 질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의연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펠프스와는 다른 애도와 위안의 모습을 보인다. 트웨인은 또 펠프스의 천국이 너무 협소하다고 비판하며 그것을 우주적인 사이즈로 확장시키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다양한 인종으로 채운다. 이런 방식으로 트웨인은 백인중심주의와 미국중심주의를 풍자한다. 펠프스의 천국이 이생의 즐거움이 유지되는 곳으로 그려진 반면, 트웨인의 천국에서는 지상에서 가난하거나 운이 나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 보인다. 트웨인이 그린 이런 천국의 모습은 미국의 백인 우위 인종주의와 계급적 불평등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천국, 풍자, 백인우위 인종주의, 『열려있는 문』, 『스톰필드 선장의 천국 방문기』

---

* 본 연구는 2019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머리말

천국에 대한 담론의 기능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다. 많은 종교들이 이생의 고통과 내세의 행복을 대비시키고, 신이 반드시 내세에 선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보상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극적 사건인 남북전쟁(The American Civil War, 1861-65)이 끝난 후, 1871에서 1876년 까지만 적어도 80권의 책이 내세나 천국에 대해 쓰였다는 것(Paludan 367)은,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미국인들이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위안을 얻고 상실감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천국 담론의 또 하나의 기능은 사회비판이다. 천국 혹은 유토피아를 그린 소설들은 천국을 현실과 대조되는 곳으로 묘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현실세계를 비판한다. 그 세계를 얼마나 살고 싶은 곳으로 그리느냐가 바람직한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작가의 능력을 보여준다. 만약 그 천국이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곳으로 그려진다면 작가의 의도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현실 세계의 문제를 선명히 보여주는 적절한 요소를 제시한다면 작가의 비판 조준이 성공한 것이고 작품은 사회비판으로서 훌륭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마크 트웨인(Mark Twain 1835-1910)은『스톰필드 선장의 천국 방문기』(*Captain Stormfield's Visit to Heaven* 1909)[1]를 당시의 베스트셀러였던 엘리자베스 펠프스(Elizabeth Phelps 1844-1911)의 『열려있는 문』(*The Gates Ajar* 1868)에 대한 풍자(burlesque)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다(*Autobiography* 277). 위에 언급한 천국 담론의 두 가지 기능을 고려할 때 마크 트웨인의 『방문기』는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한다. 먼저, 『열려있는 문』은 남북전쟁 후 쓰여 진 최고의 위로 문학(consolation literature)[2] 중 하나로 평가되는데, 트웨인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본다면 그 위안의 본질을 재고할 여지가 생기지는 않을까? 트웨인은 펠프스를 풍자함으로써 그녀와는 다른 위안을 제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학으로부터 받는 위안 자체를 거부하는가? 다른 한편, 천국 담론으로서 또 다른 기능 즉 사회비판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트웨인이 그리는 천국은 당대의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는가? 『열

려있는 문』은 그 비판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방문기』를 『열려있는 문』과 비교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자. 『열려있는 문』은 남북전쟁으로 유일한 혈육인 오빠를 잃은 한 젊은 여성 메리 캐봇(Mary Cabot)이 기존의 교회가 제공하는 천국 이야기에서 위안을 얻지 못했으나, 이모인 위니프레드 포사이드(Winifred Forceythe)가 제시하는 새로운 천국관 덕분에 슬픔을 극복하고 신앙을 회복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기존 교회의 구성원들은 죽은 오빠가 저 멀리 천국으로 떠났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생의 고통은 완전히 잊었으리라고 말한다. 목사는 천국의 일은 하나님의 특성을 연구하고 찬양하는 것이며, 천국에서 그 밖의 하찮은 즐거움은 옅어질 것이라고 설교한다. 그러나 메리는 목사가 설교하는 차갑고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천국 대신, "실제적인 어떤 것, 기분 좋은 어떤 것"(something actual, something pleasant)인 천국을 원한다(73). 작품 속에서 목사의 천국에 대한 설교 장면은 현실감 있는 위로에 대한 대중의 욕구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회의 간극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열려있는 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독자들에게 위안을 준 것은 위니프레드가 제시하는 천국에 대한 관점이다. 그녀는 죽은 자들이 천사처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봐주고 있다고 주장한다(88). 천국은 현세와 단절된 초월적인 곳이 아니라 현세의 연장이며, 그곳은 산과 나무와 자연, 농담, 심지어 아이러니조차 존재하는 곳으로(142) 우리가 현세에서 누리는 즐겁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계속될 수 있는 곳이다. 펠프스의 천국 묘사에서 위로를 얻은 대중은 칼뱅이즘 중심의 당대 기독교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위로를 얻지 못한 이들이었다. 판매 부수에서 드러나는 대중의 호응[3]은, 이 책이 위로 문학으로서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어필했음을 말해준다(안동현 34).

트웨인의 『방문기』는 바다에서 죽은 스톰필드 선장이 광속으로 우주를 거쳐 천국에 도달한 후 겪는 이야기다. 도착하는 데도 긴 시간이 걸렸지만 거기서 자기 구역을 찾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릴 만큼 천국은 광대한 곳이다. 그가 상상했던 것과 달리 백인 기독교인들만 구원을 받아 그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종교의

사람들이 있다. 천국에 대해 사람들이 상상하는 날개와 후광은 이곳에서 유니폼일 뿐이며, 이 천국은 계속되는 찬양과 영원한 안식의 장소도 아니다. 이 작품은 스톰필드가 관찰한, 사람들의 기존관념과 다른 천국의 이모저모를 여행기처럼 기록했다. 트웨인이 정통 교회의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위로 대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은 펠프스와의 공통점이다. 리스(Robert Rees)는 트웨인이 펠프스를 풍자했다기보다 그녀에게서 아이디어를 빌려왔으며 두 작품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차이는 펠프스가 주인공의 입을 빌어 천국에 대한 상상을 제기했다면 트웨인은 그 논리의 결론까지 끌고 가서 현실감 있는 인물들이 거주하는 실제의 천국을 그려냈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Rees 200 and 202). 리스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두 사람에게서 공히 당대의 근본주의적 신학과 그에 기인한 상투적이고 안이한 천국 개념에 대한 반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풍자라고 해서 두 사람의 천국관을 완전히 대립적으로 보기 보다는, 이들이 당대의 종교적 관념이 상실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무력하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기독교의 천국관에 대한 비판은 「기독교의 천국」(“The Christian Heaven” 1905) 같은 에세이에서 트웨인이 피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트웨인이 핵심적인 면에 있어서 펠프스의 비전을 넘어서고 있으며 비판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리스는 두 작품이 보여주는 표면적인 유사점에 주목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두 작품은 죽음과 내세에 대한 태도와 미국 사회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다른 의견을 표명한다. 본고는 펠프스의 천국을 염두에 두고 트웨인의 천국 묘사를 살펴봄으로써 앞서 제기한 대로 천국 담론으로서의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방문기』는 트웨인의 전성기 걸작들인 『얼간이 윌슨』 (*Pudd'nhead Wilson* 1894), 『톰 소여의 모험』(*The Adventures of Tom Sawyer* 1876), 『허클베리 핀의 모험』(*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1884) 등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대표작으로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말년의 종교적 회의주의가 반영된 불경스러운(sacrilegious) 작품으로 간단히 언급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내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논의 자체가 많지 않았고 미국사회 비판이

라는 맥락에서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위대한 작가의 이름에 값하는, 미국사회 전반에 대한 통찰력 있는 비판임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천국 담론이 주는 위안에 대한 트웨인의 태도를 살펴본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각각 트웨인의 제국주의 비판, 계급 불평등 비판을 『열려있는 문』과 비교하며 살펴볼 것이다.

2. 위안으로서의 천국에 대한 태도

펠프스의 천국은 사람들이 상실의 고통을 이기도록 해 주는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트웨인은 상실에 대한 위안으로 사람들이 천국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펠프스는 현실을 초월해 멀리 떨어져있는 천국이 아니라 현실과 이어져 있으며 현실의 기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곳으로 천국을 그려냄으로써 남북전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위로했다. 펠프스가 그린 곳은 말하자면 인간중심의 천국(a human-centered Heaven)이었다(Doyno viii). 위니프레드는 죽음의 경계를 넘는 순간 바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남편을 만나는 것으로 암시되며(246) 메리도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그리운 오빠를 행복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희망한다. 반면 트웨인은 천국에 대한 어떤 상상이나 담론도 상실에 대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결과로, 트웨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격적인 재회를 하는 천국을 그리지 않는다.[4] 오히려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천국의 재회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천국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샌디(Sandy)는 스톰필드 선장에게 27년 전에 2살 된 아기를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20대의 젊은 어머니는 아기가 죽자 천국에서 그녀를 다시 만날 날만을 고대하며 살았다. 드디어 자신도 천국에 왔으나 27년 전에 죽은 아기는 천국에서 자라기를 선택해 (트웨인의 천국에서는 각자가 자기의 나이를 선택할 수 있다) 더 이상 어머니가 기억하는 아기가 아니다. 아이는 많은 것을 배

운 유식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딸은 마치 '진흙 거북이와 낙원의 새처럼'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162).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천국에서 자신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확히 말하면 찾았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실망하는 장면은, 천국에서 이생의 관계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욕망의 투사일 뿐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트웨인에게 천국은 지상에서 우리가 누린 아름다운 사랑이 유지되고 그 관계가 이전처럼 이어지는 장소가 결코 아니다.

천국을 위안의 도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는 자신의 경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전쟁으로 인한 죽음은 아니었지만, 트웨인은 작품을 발표하기 얼마 전 그는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을 경험했다. 그의 『자서전』 마지막 부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큰딸 수지(Susy)가 1896년 사망했고, 1904년에 부인 올리비아(Olivia)도 세상을 떠났다. 외로움을 나누며 말년을 함께 하고자 했던 딸 진(Jean) 마저 1909년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트웨인은 펠프스처럼 천국을 위안으로 삼지 않았다. 수지가 죽었을 때 하우월즈(W. D. Howells)는 편지를 써서 "수지가 당신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의식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지 않다면 세계는 완전한 실수에 불과할 것"(Doyno xxi에서 재인용)이라고 위로한다. 하우월즈의 위로는 펠프스가 『열려있는 문』에서 제시하는 메시지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이노는 트웨인이 이 상투적인 위로에서 위안을 얻지는 못했으며 그녀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도 거부했다는 것을 트웨인의 답장을 들어 설명한다(Doyno xxi-xxiii).

막내딸 진의 죽음에 대한 자서전의 언급도 이를 다시 확인시켜 준다. 트웨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녀를 다시 살리려고 할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그 한마디를 하지 않을 힘을 달라고 간청하겠다. 나는 확실히 그렇다. 그녀를 잃어서 나는 완전히 파산했고 나의 삶은 비통함 자체이다. 그러나 나는 만족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가장 귀중한 선물로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선물을 평범하고 형편없는 것으로 만드는 선물, 그것은 죽음이다. 내가 어른이 된 후에 나는 한 번도

> 놓여난 친구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 적이 없다. 나는 수지가 떠났을 때도, 그 뒤에 내 아내가 죽었을 때도, 그 뒤에 로저스 씨가 죽었을 때도 그렇게 느꼈다.
>
> Would I bring her back to life if I could do it? I would not. If a word would do it, I would beg for strength to withhold the word. And I would have the strength; I am sure of it. In her loss I am almost bankrupt, and my life is a bitterness, but I am content: for she has been enriched with the most precious of all gifts — that gift which makes all other gifts mean and poor — death. I have never wanted any released friend of mine restored to life since I reached manhood. I felt in this way when Susy passed away; and later my wife, and later Mr. Rogers. (491)

사랑하는 딸을 잃음으로써 자신의 삶은 피폐하고 곤궁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곤궁해진 것만큼 안식을 얻은 딸은 부유해졌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죽음을 고통으로부터 놓여나는 것으로 수용하며 그 자신의 욕심으로 먼저 떠난 가족들을 붙들고자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연이어 경험하면서도 그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대를 위안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그런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위안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의 슬픔은 더욱 비통하게 느껴진다.

『방문기』의 전체 어조는 대체로 가볍고 코믹하지만, 아기를 찾고자 하는 어머니의 실망과 슬픔을 다루는 그 부분은 사뭇 심각하고 진지하다. 샌디는 이 이야기를 낮고 부드럽게 그리고 동정심에 가득 차서 전한다("Then Sandy said, low and gentle and full of pity" 162) 인간의 슬픔과 상실이라는 문제가 트웨인에게 결코 경쾌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이 장면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톰필드가 그들이 영원히 불행할 것이냐고 묻자 샌디는 그들이 끝까지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by and by) 함께 지내며 서로에게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트웨인은 인간 존재의 조건으로서 죽음과 이별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대한 공감과 회복을 향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트웨인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의연함을 보여주고, 삶의 질서의 일부로서

죽음을 수용하는 것도 나름의 애도와 위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죽음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아프게 경험했으며, 그 경험으로 인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방법도 알았다. 그러면서도 삶의 큰 흐름 속에서 죽음을 수용하고, 그것을 고통으로부터의 휴식으로 받아들이는 위엄과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펠프스와 트웨인의 태도 중 어떤 것이 더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트웨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펠프스의 태도는 실현되지 못한 자신의 현재의 욕망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중심성의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미국중심주의와 인종주의 비판

트웨인과 펠프스의 천국이 가장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것은 그 크기이다. 트웨인의 주인공 스톰필드는 광속으로 30년 동안 우주 속을 항해하다가 드디어 천국의 입구에 이르는데, 이곳으로 오는 도중 지옥으로 가는 행성과 경주를 하다가 방향을 잘못 트는 바람에 방향에 착오가 생겨 자기 구역을 찾지 못한다.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안내를 하는 문지기는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나 캘리포니아(California), 미국(America)은 물론 세계(the world)마저도 들어본 적이 없다. 스톰필드가 세계로부터 왔다고 하자 담당자는 여기에는 그런 세계가 수십 억 개 있다고 말한다(151-52). 결국 목성을 단서로 로드아일랜드 사이즈의 천국 지도(위에 인용한 자서전의 언급에서 트웨인은 펠프스의 천국이 로드아일랜드 사이즈라고 언급했었다)를 이틀이나 뒤진 끝에 겨우 지구를 찾아내는데, 지구는 사마귀(the Wart)라고 언급된다(153).

이 부분에서 트웨인은 펠프스가 제시한 천국이 너무 좁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풍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을 미국으로 보는 사고도 비판한다. 트웨인이 보여주는 천국의 광대한 사이즈는 '미국'과 '백인'의 기준을 넘어 더 큰 범위로 사고를 넓혀준다. 트웨인이 펠프스의 천국을 협소하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그곳이 다른 인종과

계층을 포함할 충분한 여지를 주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트웨인은 뉴잉글랜드(New England)의 중산층 여성 펠프스가 빅토리아 식의 안락한 거실에 앉아 상상하는 천국에 자기의 행동범위만을 고려하는 지방적인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 같다.

트웨인의 백인중심주의 비판은 그가 자신의 천국을 드디어 찾아간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우여곡절 끝에 스톰필드는 겨우 천국 내의 자기 구역을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은 생전에 만난 적이 있는 미국 원주민(a Pi Ute Injun)이다(156). 스톰필드는 천국에서 백인 천사 하나를 만나는 동안 영어를 모르는 1억의 유색인을 만난다. '미국 구역'(American district)에서 조차도 백인 천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스톰필드보다 천국에 먼저 와 있었고 그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샌디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미대륙은 유럽인들이 건너오기 전 십 억년 동안 인디언이나 아즈텍인들의 거주지였다. 미국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죽은 백인은 넉넉잡고 5천 만 명, 아무리 많이 잡아도 1억 명이다. 이 넓은 천국에 그 사람들을 흩어 놓으면 찾기 힘든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샌디의 설명이다(175). 미 대륙의 오랜 역사를 고려하면 백인이 이곳의 주인 노릇을 한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기에 원주민들이 천국의 미국 구역 주민의 대다수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샌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는 천국에서 뭐나 되는 존재이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단순한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야 해요. 다른 행성이나 다른 시스템에서 유식한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왕국을 돌아다니며 관광하다가 자기 구역 천국으로 돌아가 여행기를 쓰지요. 그들은 미국에 대해 다섯 줄 정도 씁니다. 우리에 대해 뭐라고 하냐고요? 이 광야에는 수백 수천 수십억 붉은 얼굴 천사가 흩어져 있으며, 가끔 기이하게도 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글쎄, 그들은 백인과 가끔 보이는 흑인들이 문둥병이나 기타 다른 *병* 때문에 표백되거나 검게 변한 인디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하게 악랄한 어떤 *죄* 때문에 생긴 병 말이지요.

> You can't expect us to amount to anything in heaven, and we *don't*—now that is the simple fact, and we have got to do the best we can with it. The learned men from other planets and other systems come here and hang around a while, when they are touring around the Kingdom, and then go back to their own section of heaven and write a book of travels, and they give America about five lines in it. And what do they say about us? They say this wilderness is populated with a scattering few hundred thousand billions of red angels, with now and then a curiously complected *diseased* one. You see, they think we whites and the occasional nigger are Injuns that have been bleached out or blackened by some leprous disease or other—for some peculiarly rascally *sin*, mind you. (174-75) (original italics)

여기서 '우리'는 샌디 자신과 스톰필드 즉 미국 백인을 가리킨다. 트웨인은 천국에서 미국은 다섯줄의 설명거리도 안되며, 백인의 하얀 얼굴은 병들어 탈색된 얼굴로 비쳐진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탈색시킨 '특이하게 악랄한 어떤 죄'는,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후 자행한 많은 죄들을 연상시킨다.

트웨인은 당대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반제국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는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질서를 확립하면서 해외로 팽창하던 시기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의 강대국들과 함께 전 세계에 걸쳐 영토와 세력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의 배후에는 인종주의와 서구중심주의가 자리하고 있었다. 팽창주의 옹호자들은 "우월한 인종인 앵글로 색슨족의 후예로서 보다 넓은 땅을 차지해야 할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인종주의적 이유에서"(이주영 248) 팽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앵글로-색슨족의 기독교 문명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까지 퍼져야 한다는 것이 조시아 스트롱(Josiah Strong 1847-1916) 목사 등 당시 지식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의 주장이었다(이주영 249). 그러나, 천국의 미국 대륙이 어떤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지에 대한 트웨인의 묘사는 이 제국주의적인 발상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한다.

트웨인은 당시 지식인들과 문학가들의 제국주의적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영국 시인 키플링(Rudyard Kipling 1865-1936)은 「백인의 짐」(“The White Man’s Burden” 1899)이라는 시를 통해 이제껏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영국이 담당해왔으나 이제는 미국이 그것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시에서 필리핀인들을 ‘반은 악마이고 반은 어린이’에 비유하여 백인들이 그들을 교화시키고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트웨인은 「어둠 속에 앉아있는 사람에게」(“To the Person Sitting in Darkness” 1901)라는 글에서 이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트웨인은 독립을 원하는 필리핀인들을 폭력으로 저지한 것은 독립선언과 워싱턴의 고별 연설, 링컨의 게스트버그 연설에서 표명된 미국적인 이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Harrington 650-51). 트웨인이 『방문기』에서 풍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백인 중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중심의 사고이다.[5)]

이처럼 트웨인은 프로테스탄트의 배타성과 백인중심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이것이 작품의 천국 묘사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기독교인들 특히 프로테스탄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공언한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고 주장했지만, 트웨인이 『방문기』에서 그린 천국에는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이교도들, 백인 뿐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 흑인, 동양인 등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거주한다. 스톰필드가 천국에 이교도들이 가득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자 샌디는 “그들에게도 메시지가 있고 마땅한 보상도 있다”(170)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이 천국은 기독교 신자들에게만 열려진 곳이 아니고 종교를 초월한 일종의 범(凡)세계이다. 펠프스의 천국이 로드아일랜드 사이즈라고 풍자했던 트웨인은 자신의 주인공 스톰필드가 그 만한 크기의 지도를 사마귀만한 지구를 찾아 헤매도록 만든다. 광대한 천국은 다양한 믿음을 가진 다양한 인종들로 채워져 있으며,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고 야만인들을 교화시켜 기독교화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백인 기독교인은 존재감이 없다. 이것은 펠프스와 그녀의 독자들이 보지 못한 세계로 독자의 눈을 넓혀준다.

4. 다양한 계층과 인종

펠프스가 『열려있는 문』에서 그려낸 천국은 중산층 중심의 세계이다. 그곳은 지상의 존재가 이상적으로 확장된 곳이고 지금 이 세계와는 얇은 막 하나로만 구분된 곳이다. 주인공 위니프레드와 메리는 천국에서 이 생(生)의 즐거움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 즐거움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산책과 독서, 미래의 계획 같은 중산층의 문화생활과 관련이 있다. 메리가 찰스 램(Charles Lamb)을 인용하며 천국에서 사라지지 않을 이 생(生)의 즐거움에 대해 언급하는 다음 부분은 이를 확인시켜준다.

> "'…해, 하늘, 산들바람, 혼자 하는 산책, 여름 휴가, 들판의 푸르름, 고기와 생선의 맛있는 육즙, 그리고 사교계… 촛불, 화롯가의 대화, 악의 없는 허영심, 농담, 그리고 아이러니 자체까지—이것들이 인생이 끝나면 사라질까?'"

> "'…Sun, and sky, and breeze, and solitary walks, and summer holidays, and the greenness of fields, and the delicious juices of meats and fish, and society, ... and candle-light and fireside conversations, and innocent vanities, and jests, and irony itself,—do these things go out with life?'" (141)

물질적 구체성을 띠고 나열된 이 항목들은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대화에서 찰스 램을 인용한다는 자체가 이들의 교양 있는 중산층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이미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펠프스가 다른 계층의 가난한 이들을 천국으로부터 배제한 것은 아니다. 위니프레드는 현실에서 위대하다고 인정받는 인물들이 천국에서까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자신이 아는 일용직 노동자나 극빈자들이 그들보다 앞서 천국에서 왕과 사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164). 그러나, 이 작품의 주인공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생의 아름다움이 지속되는 것에 초점이 가 있다. 이는 그들이 전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의 행복이 파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상상하는 천국에는 물질적인 이유에서건 관계의 문제 때문이건 이 세상의 삶을 그대로 계속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작품 초반에 잠시 등장하는 메리의 하녀 피비(Phoebe)는 아마도 지금 이대로의 삶이 유지되는 천국을 원하지 않을 것 같지만, 메리나 위니프레드의 천국에는 그런 고려의 여지가 없다.

남북전쟁으로 인한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런 죽음과 그로 인한 상실감은, 죽음이 단절이 아니고 현실과 이어져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삶이 메리가 누린 것과 같은 즐거움만 가득한 것이 아닐진대, 빅토리아식 응접실과 피아노를 옮겨놓고 이 삶의 기쁨을 계속 누리는 곳을 천국으로 상정한다면 편협하고 물질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자기 고통을 절대화하고 그 이상을 보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트웨인은 펠프스를 포함한 당대 미국인들의 협소함과 자기중심성의 가능성에 거리를 두고, 인종과 계층을 넘어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최대한 발현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에 대한 바람을 이 작품에서 담아내고 있다.

트웨인의 천국에서는 가난하거나 불운해서 재능을 발휘해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성취할 기회를 얻고 있다. 테네시 출신의 빌링스(Billings)라는 양복장이는 생전에 시를 썼으나 아무도 그것을 출판해 주지 않았고, 무지한 이웃들은 그것을 읽고도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비웃기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술이 취하면 그를 끌어내서 시를 읊게 하고 양배추 잎으로 관을 만들어 씌우고 조롱하곤 했다. 마침내 그는 병든 몸으로 굶어 죽었다. 자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나 그가 천국에 도착하자 선지자로 받아들여져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벌어진다(170). 환영행사에서 셰익스피어가 그의 길을 앞서 가며 꽃을 뿌리고, 호머는 연회에서 그의 시중을 든다(172). 죽기 전 빌링스는 자신이 타고난 문학적 재능을 펼칠 수 없었으나 천국에서는 셰익스피어나 호머를 능가하는 시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트웨인의 천국에서는 지상에서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가난하거나 불운해서 자

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해낼 기회를 얻고 있다. 리처드 더퍼(Richard Duffer)는 호보켄 출신의 소시지 가게 주인인데, 조용히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고기를 갖다 주었다. 이를 모르는 주위 사람들은 그를 인색하다고 비난했지만, 천국에 도착한 뒤에 모든 것이 밝혀지고 그는 준남작(baronet)의 작위를 받는다(172-73). 압살롬 조운즈(Absalom Jones)라는 보스턴 출신 벽돌공은, 비록 엄지손가락이 없고 앞니가 빠졌다는 이유로 입대조차 하지 못했으나 일찍이 태어난 가장 위대한 군사적 천재로 추앙받는다. 천국에서 시저, 한니발, 알렉산더, 나폴레옹 등 지상의 명장들이 모두 그의 참모로 일한다(177). 이처럼 트웨인이 그린 천국에서는 사람이 지상에서 어땠는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what he would have been)에 의해 판단 받는다(177).

트웨인이 그려내는 천국은 여러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이 격식 없이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이고 다원주의적이다. 그들이 행진하는 장면은 현실의 질서와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질서를 보여준다. 샌디와 스톰필드의 다음 대화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 "…샌디, 족장과 선지자 중 누가 더 높나요?"
> "오, 선지자들이 족장들보다 위지요. 가장 최신 선지자조차도 가장 오랜 족장보다 더 중요한 볼거리에요. 맞아요, 아담 자신이 셰익스피어 뒤에 걸어야 해요."
> "셰익스피어가 선지자인가요?"
> "물론이지요. 그리고 호머도요. 그 밖에도 많지요. 하지만 셰익스피어와 나머지도 모두 빌링스라는 이름을 가진 테네시 출신의 평범한 양복장이 뒤에 걸어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말 의사 사카가 옵니다. 우리 천문학에 포함되지 않은 행성들에서 온 무리 바로 뒤에 예레미아와 빌링스 그리고 부처가 함께 나란히 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목성과 기타 세계에서 온 일 이십 명이 오고. 다음에는 다니엘, 사카 그리고 공자가 옵니다. 그 다음엔 우리 태양계 바깥의 계에서 많은 이들이 오고요. 다음엔 에스겔, 마호메트, 조로아스터, 그리고 고대 이집트 출신 칼 가는 사람이 와요. 긴 줄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끝에 다가가서 셰익스피어와 호머가 오고, 프랑스의 뒷골목 출신의 마레라는 구두장이가 옵니다." (170)

> "…Sandy, which is the highest rank, patriarch or prophet?"
> "Oh, the prophets hold over the patriarchs. The newest prophet, even, is of a sight more consequence than the oldest patriarch. Yes, sir, Adam himself has to walk behind Shakespeare."
> "Was Shakespeare a prophet?"
> "Of course he was; and so was Homer, and heaps more. But Shakespeare and the rest have to walk behind a common tailor from Tennessee, by the name of Billings; and behind a horse-doctor named Sakka, from Afghanistan. Jeremiah, and Billings and Buddha walk together, side by side, right behind a crowd from planets not in our astronomy; next come a dozen or two from Jupiter and other worlds; next come Daniel, and Sakka and Confucius; next a lot from systems outside of ours; next come Ezekiel, and Mahomet, Zoroaster, and a knife-grinder from ancient Egypt; then there is a long string, and after them, away down toward the bottom, come Shakespeare and Homer, and a shoemaker named Marais, from the back settlements of France." (170)

샌디가 나열하는 서열 목록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 선지자들 이름 외에도 마호메트, 부처, 조로아스터 등 타 종교의 구원자들, 외계의 존재들뿐만 아니라, 곳곳에 무명의 하층민들이 섞여 있다. 빌링스, 사카, 칼 가는 사람, 마레 등은 이 세상에서는 전혀 주목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트웨인은 이를 통해서 잊혀 진 보통의 사람들에게 다시 주목하고 각 존재의 귀중함을 일깨운다. 더불어 트웨인은 이 목록을 통해 인물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우리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순서의 기준은 무엇인가? 왜 어떤 인물이 다른 인물보다 뒤에 와야 하는가? 독자가 이 순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트웨인이 엄격한 기준으로 이 순서를 만들고 그것을 독자에게 강요하고자 한 것은 아닌 듯하다. 다만 이 순서로 인물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판단과 평가의 기준을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트웨인은 구원의 문제를 가난한 이들의 관점에서 보았다. 그런 견지에서 트웨인은 교회가 하층계급을 멀리하는 것이 기독교 본질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작품 속에 여러 번 언급되는(166-69) 브루클린의 탈마지(Thomas De Witt Talmage

1832-1902) 목사는 더럽고 냄새 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교회에 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트웨인의 신랄한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탈마지 목사를 비판한 「냄새에 관하여」(“About Smells” 1870)라는 글에서 트웨인은 천국에 노동자들 뿐 아니라 흑인, 에스키모, 아랍인, 인디언 등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웨인이 『방문기』에서 그려 보이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다. 트웨인은 예수가 목수였고 제자들이 냄새 나는 어부들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십자가와 말뚝, 도끼도 두려워하지 않던 기독교인들이 나쁜 냄새 정도에 시들어가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있다고 일갈한다(“About Smells” 366). 이처럼 트웨인은 점잖음과 교양을 가장한 교회의 배타적 계급의식과 위선을 비판하고, 그것을 지양한 천국을 그려 보였다.

5. 맺음말

위에서는 트웨인이 『방문기』에서 그려 보인 천국이 펠프스의 천국과 어떻게 다른지, 기존 종교의 상투적인 천국에 대한 비판이라는 메시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방문기』가 『열려있는 문』에 대한 비판이며 풍자인지를 살펴보았다. 트웨인은 펠프스가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써 암시하고 있는 것까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고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펠프스의 천국은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주었지만, 트웨인은 그 위로가 자기중심적인 허상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게 하였다. 그는 펠프스와 달리 천국에 대한 상상을 현재의 고통에 대한 위로의 방책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고, 어떤 담론도 상실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더불어 죽음을 받아들이는 의연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그 나름의 애도와 위안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트웨인은 펠프스의 천국이 너무 협소하여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한 것과 달리 타문화와 타 인종을 포용하는 천국을 보여주었고, 그럼으로써 팽창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에게까지 풍자의 대상을 넓혔다. 트웨인은 펠프스가 그리

는 중산층 중심의 천국과 달리, 모든 인종과 계층과 상관없이 자기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민주적인 공간으로 천국을 그려냈다. 그는 중산층 중심의 우아하고 동질적인 천국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며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얻는 다원주의적인 천국을 그렸다.

트웨인은 이 작품에서 독자로 하여금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사회와 문화, 종교에 대해 뒤집어서 생각하고 근본적인 재고를 하도록 만드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가진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그의 풍자는 위로의 문학으로서의 천국 담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거울을 통해 현실세계에 대해서도 통찰을 제공한다.

Notes

1) 이 작품의 각 판본과 출판과정에 대해서는 Baetzhold와 McCullough의 글 참조. Howard G. Baetzhold와 Joseph B. McCullough가 편집한 *The Bible According to Mark Twain*은 1909년 책으로 출판된 텍스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문에서 다루는 텍스트는 이 판본을 기준으로 하며 작품의 제목은 『방문기』로 줄여 쓰고 페이지 수만 적는다.

2) '위로 문학'은 사별이나 상실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글들 곧 조문객 매뉴얼, 기도 매뉴얼, 시, 찬송가, 소설, 전기 등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위로 문학의 유행은 남북전쟁 전후 수 십 년 동안(대략 1830-1880 경) 19세기 미국문화에서 중요한 현상이었다. 아마도 남북전쟁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이 장르의 유행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지만, 남북전쟁 전 1830년경부터 이 장르는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쟁이 이 장르를 유행시키기 시작한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생아 사망률이나 기대수명의 변화와 종교와 목회자들의 역할 변화, 기독교에 뿌리를 둔 여성 작가들의 대두 등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이다. 앤 더글라스(Ann Douglas)의 논문 참조.

3) 『열려있는 문』은 판매에서 미국에서 19세기를 통틀어 『엉클 톰의 오두막』(*Uncle Tom's Cabin* 1852)을 제외한 모든 책을 능가했고 출판된 후 20년간 55쇄를 찍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Faust 185-86).

4) 종교적인 관점에서 트웨인이 내세를 진정으로 믿었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 트웨인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테센(Peter J. Thuesen)은 트웨인이 종교적 회의주의를 끝까지 극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뱁콕(C. Merton Babcock)은 그의 작품들이 잘 계산된 신성모독이라고 본다. 반면, 스마일리(James H. Smylie)는 트웨인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기는 했으나 끝까지 회의주의를 극복하려 애썼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를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트웨인이 근본주의적 기독교에 대해 반대한 것은 분명해 보이나, 기독교 자체에 회의를 가진 것 같지는 않다. 핍스(William E. Phipps)는 심지어 트웨인이 칼뱅주의자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엇시(Dwayne Eutsey)는 『신비한 이방인』(*The Mysterious Stranger* 1916)을 다루는 논문에서 "마크 트웨인의 불경한 겉치장 아래에는 그의 시대에 만연했던 종교성이나 현대의 학계가 기꺼이 인정하려고 한 것보다 더 심오한 신에 대한 의식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45).

5) 트웨인은 미국 반제국주의 동맹(American Anti-Imperialist League)의 회원으로 참여하며 필리핀, 쿠바, 아프리카, 중국에서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 행태를 비판했다. 마크 트웨인은 국외의 타 국민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이민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Smiley 486).

인용문헌

이주영. 『미국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5. Print.

안동현. 「엘리자베스 펠프스의 『열려있는 문』이 제시하는 여성들의 천국」. 『미국소설』 26.2 (2019): 33-53. Print.

Babcock, C. Merton. "Mark Twain: A Heretic in Heaven." *ETC.: A Review of General Semantic* 18.2 (1961): 189-96. Print.

Douglas, Ann. "Heaven Our Home: Consolation Literature in the Northern United States, 1830-1880." *American Quarterly* 26.5 (1974): 496-515. Print.

Doyno, Victor. Introduction. *Extract from Captain Stormfield's Visit to Heaven*. New York: Prometheus, 2002. Print.

Eutsey, Dwayne. "Mark Twain's Attitudes toward Religion: Sympathy for the Devil or Radical Christianity?" *Religion & Literature* 31.2 (1999): 45-64. Print.

Harrington, Fred Harvey. "Literary Aspects of American Anti-Imperialism 1898-1902." *The New England Quarterly* 10.4 (1937): 650-67. Print.

Kipling, Rudyard. "The White Man's Burden." *Complete Verses*. New York: Anchor Books, 1989. 321-23. Print.

Paludan, Phillip Shaw. *A People's Contest: The Union and Civil War, 1861-1865*. New York: Harper and Row, 1988.

Phelps, Elizabeth Stuart. *The Gates Ajar*. Boston: Fields Osgood, 1868. Print.

Phipps, William E. "Critic's Corner: Mark Twain, the Calvinist." *Theology Today* 51.3 (1994): 416-20. Print.

Rees, Robert A. "*Captain Stormfield's Visit to Heaven* and *The Gates Ajar*." *English Language Notes* 7.3 (1970): 197-202. Print.

Smylie, James H. "The Preacher: Mark Twain and Slaying Christians." *Theology Today* 57.4 (2001): 484-500. Print.

Thuesen, Peter J. "American Christians and the Emptiness of Death." *Church History* 85.2 (2016): 360-4. Print.

Twain, Mark. *The Autobiography of Mark Twain*. Ed. Charles Neider. New York: Harper, 1959. Print.

_____. *The Bible According to Mark Twain*. Ed. Howard G. Baetzhold and Joseph B. McCullough. New York: Touchstone, 1996. Print.

_____. "About Smells." *Mark Twain: Collected Tales, Sketches, Speeches, and Essays, 1852-1890*. Ed. Louis J. Budd. New York: The Library of America, 1992. 365-66. Print.

_____. "The Christian Heaven." *Mark Twain & the Three R's*. Ed. Maxwell Geismar. New York: The Bubbs-Merrill Company, 1973. 126-32. Print.

_____. "To the Person Sitting in the Darkness." *Mark Twain: Collected Tales, Sketches, Speeches, and Essays, 1891-1901*. Ed. Louis J. Budd. New York: The Library of America, 1992. 457-73. Print.

Abstract

Criticisms of 19th Century America in Mark Twain's 'Heaven'

Dong Hyun Ah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Mark Twain's *Captain Stormfield's Visit to Heaven* serves two functions: consoling its readers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delivering social criticism through its discourse on heaven. The novel was written as a burlesque of Elizabeth Phelps's *The Gates Ajar*, a prominent example of "consolation literature" and a bestseller at the time. Unlike conventional ideas of heaven based on traditional Christianity, Phelps includes secular joys of this world in his portrayal of heaven, which consoled its readers suffering from the pain of loss. Twain, on the other hand, refuses to use the concept of heaven as a tool for consolation but instead offers comfort in a different way by remaining dignified and accepting death as an inevitable part of life. Twain also criticizes Phelps's narrow portrayal of heaven and expands it to a cosmic size and fills it with various ethnicities and religions. In this way, Twain satirizes white supremacy racism and American imperialism. While Phelps depicts heaven as a place where the joys of this world are continued, Twain's heaven is a space in which the poor or the unlucky, having lived miserable lives on earth, are able to fulfill their potential. This sort of depiction of heaven can be considered to be Twain's indirect criticism of America's racism and class inequality.

Key Words: Heaven, burlesque, white supremacy racism, *The Gates Ajar, Captain Stormfield's Visit to Heaven*

논문접수일: 2019.09.15
심사완료일: 2019.10.04
게재확정일: 2019.10.15

이름: 안동현
소속: 서울신학대학교 교양학부
주소: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 489번길 52
이메일: donghyun@stu.ac.kr